

‘홀로그램 기술로 세계를 사로잡다’

도·익산시, 홀로그램 산업 성과 공유회 개최... 지역 홀로그램 기업 14개사, 제품 홍보 전시관 운영·주요 성과 공유 등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는 9일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을 비롯한 홀로그램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오택립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을 비롯해 정현을 익산시장, 김대중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 김경진 익산시의회의장,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재)전북테크노파크 부설), 기업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2019년부터 추진해 온 홀로그램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전북의 홀로그램 산업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도는 익산시와 함께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사업 △체감형 홀로그램 기술 사업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609억원을 투입해 홀로그램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성과보고회에서는 기술개발과 실증 성과, 기업의 매출액 상승은 물론 전북 홀로그램 산업이 국제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전북 홀로그램 기업들은 Korea Metaverse Festival 2024와 일본 도쿄에서 열린 파인테크(FINETECH) 등 국내외 주요 행사에 참가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일본 파인테크에서는 총 9개의 국내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는 9일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을 비롯한 홀로그램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유망 홀로그램 기업이 홀로그램 공동관을 운영하여 총 404건, 약 2,1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

행사 현장에는 홀로그램 기업 14개사의 전시관을 마련해 우수 제품도 선보였다. (주)홀로랩의 대화형 인공지능 번역 기능이 결합된 투명 디스플레이 등은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행사 중반부에는 홀로테크 허브(HoloTech Hub) 디지털 현판식도 진행됐다. 이 센터는 2020년부터 142억원을 투입해 설립·운영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로, 홀로그램 기술 실증 및 리빙랩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 입주 공간과 테스트 베드 공간을 제공해 왔다. 센터는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며 전국 거점기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익산청년시청에 조성된 홀로그램 쇼

룸 투어도 진행됐다. 이 공간은 일반 소비자와 산업 관계자가 홀로그램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익산청년시청을 비롯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석재문화체험관 총 3곳에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홀로그램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으며, 특히 홀로그램 기술의 실질적인 산업 확산과 소비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홀로그램 쇼룸의 일반인 참관은 12월 10일부터 가능하며, 각각의 전시 공간별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도 기업 지원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전

북을 세계적인 홀로그램 기술 중심지

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오택립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올해 전북 홀로그램 산업은 기술 실증, 콘텐츠 확산,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이루며, 대한민국 홀로그램 산업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라며, “앞으로도 도내 홀로그램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2019년부터 홀로그램 핵심기술 개발에 총 609억 원을 투입해 익산시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키엘연구원, 원광대 등과 함께 전북을 홀로그램 산업의 중심지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도, 드론 영상·사진 전시회 개최

전북의 자연·명소 주제로... 13일까지 도청 1층 로비서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는 드론을 활용해 전북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상·사진 전시회를 9일부터 13일까지 도청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 명소를 드론으로 촬영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드론 기술에 관한 관심을 증진하고, 도민들과 전북의 매력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전은 ‘새로운 시작! 드론’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매력을 그린다’를 주제로, 지난 4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작품을 접수했다.

전북의 자연과 명소를 주제로 한 영상 21점과 사진 81점 등 총 102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기획 완성도, 독창성,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18점(드론 영상 3점, 드론 사진 15점)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전시회 첫날인 9일에는 공모전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영상 부문 최우수상은 전주시의 이종열 씨가, 사진 부문 최우수상은 무주군의 유지훈 씨가 수상했으며, 도지사상장과 함께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번 시상에서는 드론 영상 3점, 드론 사진 5점에 대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수여되었으며, 입선작 10명에게도 소정의 상금이 지급됐다. 수상작은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각종 홍보물과 행사 자료 등에서 활용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특별방역대책 기간 가축 방역 강화

김종훈 경제부지사, 김제 용지 밀집단지 AI 방역 현장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에 따라 9일 김제 용지 산란계 밀집단지의 방역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5일 김제 공덕 육용오리농장에서 발생한 AI와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발생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밀집단지 내 소독거점시설과 알 환적장 등의 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발생농장 주변과 밀집단지 내 방역 추진 현황등을 확인하며 관계자들의 방역 강화와 소독의 중요성을 강

조하기도 했다.

김 부지사는 특히 축산차량의 철저한 소독과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철새 도래지와 농가 주변 도로 소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밀집단지의 방역 강화 방안과 함께 AI 확산 방지에 필요한 세부적인 조치를 논의했다.

도는 농가가 스스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방역 작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관계 부서와 협력해 농가의 방역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철저한 방역 관리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지자체별 지역 민생안정 대책 수립·시행 당부

공직기강 확립·당면 현안 차질 없는 수행 강조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오전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민생안전 대책 관련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논의된 협조사항을 실·국 및 도내 시군에 긴급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당면 현안 및 업무철저, 공직기강 확립, 대선험·한파·화재 등 겨울철 주요 재난 안전 상황관리를 위해 경찰·소방 등 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다. 특히, 지역 체감경기 회복 및 소비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소비·투자 분야에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예산 이월·불용 최소화 등 서민생활 및 지역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5일 발표한 정부의 민생안정 지원 방안을 적극 반영해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지역 민생안정 대책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장 회의와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회의내용을 전파하고 실·국 및 시군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공직이 중심을 잡고 소임을 다해주기 바라며, 취약계층 보호,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 연말연시 축산물 합동단속 실시

전북자치도가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과, 동물방

역과, 도내 시·군이 협력해 축산물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허가, 미표시, 미포장 등 불법 축산물 운반

및 보관 △운반·보관 시 적정 온도 준수 △냉장·냉동시설 기준 준수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냉장·냉동시설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수수사관으로 신고전화(280-138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최우수’

질병관리청 주최 평가대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질병관리청 주최 ‘2024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대회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0개 시도 및 10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우수기관으로는 전북 정읍시, 경남 합천군, 충남 서천군, 강원 횡성군이 선정됐다.

전북자치도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분석과 인구학적 특성 파악을 통해 전략적인 사업 운영을 추진했다. 특히, 농업인을 주요 고위험군으로 선정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14개 시군이 동시에 집중 홍보 활동을 벌여 예방 효과를 극대화했다.

올 상반기에는 도내 보건소 담당자들을 대상 워크숍을 개최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담당자들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만호 기자

모집	겨울을 보람있게! (1, 2월 동계과정)	환영
스피치기법, 웃음코칭, 리더십, 긴장해소, 시낭송, 면접스피치		
※ 남녀노소 누구나 등록가능, 저렴한 등록금, 매주 1회 야간수업		
	▷전담교수 주요경력 전주교육대학 겸임교수역임 전북대학교교양과목 담당교수역임 한국스피치옹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개발원 초빙교수 “행복한스피치” 등 4권저자 스피치칼럼리스트, KBS아침마당 3회 출연 평생교육사, 시낭송가, 작사가, 옹변지도사 스피치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 모집기간 : 11월 20일 ~ 12월 31일까지(남, 녀 누구나 가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금암동)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효자동)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익산시)		
문의 : 010-7304-5665, 231-6669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

